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827호 현대불교 25
2011년 3월 16일(음 2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이렇다 저렇다 시비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법당에 왜 대통령의 등을 달아야 하는지

문) 2010년 초파일 행사가 있는 선원에 갔을 때, 법당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큰 연등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법당을 밝히는 큰 등의 꼬리에는 큰스님, 스님들, 사부대중,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이 쓰여진 그 연등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기독교 장로의 이름을 거기에 써 넣다니요. 말할 수 없는 분개마저 일어났습니다. 올해 초파일에는 그 등이 걸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 질문하신 분이 불자라고 한다면 "진짜 불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연등을 켜는 자체가 아주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 줍니다. 왜냐. 내가 한생각을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불이 사방을 환히 밝히는 것이 보이는 등불만 환하게 켜다고 해서 그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을 켜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일신을 위해서 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일체 모든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한 등을 켜는 한 마음으로서, 그런 마음의 불을 켜는 의미에서 연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을 켜는 것은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방편의 의식인 것이지요. 그러나 수억겁을 이끌어 오면서 공부시키고, 진화시켜 온 나의 근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극하게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일체(一切)와 직결된 나의 마음에 불을 밝힘으로써 위로는 조상님과 아래로는 일체 자손들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났다 해도 남의 부모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잘난 남의 부모보다 찌그러진 내 부모가 그래도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좀 못났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가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내다보세요. 모두가 까리까리 놓여 있고, 금은 금대로 나가게 되고 또는 풍채는 풍채대로 나가게 되고 팔씨는 팔씨대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산 대로, 지은 대로, 처원이



그림 · 최주현

그대로나가 그 차원대로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을 해서 사는 겁니다. 작든 크든 모두 다 생긴 것도 다르지만 모두가 차원들도 달라서 이 세상에 이거 할 소임을 맡을 사람이 있고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그릇대로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릇들을 보십시오. 종지가 있는가 하면 접시가 있고 그렇게 여러 층으로 돼 있듯이 사람들의 차원도 그렇고, 도량물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연못이 있으면 그 걸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구성돼야 만이 우리가 썩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원망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모두 마음들이 무(無)의 세계 50%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론이나 학술적으로, 또는 모든 것을 아주 전체

잘 배우고 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有)의 세계의 50%에 관한 건입니다. 무의 세계 50%를 모른다면 물질세계의 일을 아무리 잘 배웠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종교다 이러질 마시고 '나는 진리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저 진리를 파악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우는데 무슨 놈의 기독교, 가톨릭교, 불교가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물이 끓자기의 물이든 연못의 물이든, 비의 물이든, 구름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핏물이든 고름물이든, 다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의 물은 다 수용을 합니다. 말없이 말입니다. 저 나무 이파리 하나, 풀포기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내 종교 내 종교 찾은 것도 없이 지구가 항아리라면 항아리 속에서 같이 이렇게 내 자리, 네 자리 하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이 마음이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지구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듯이, 내 몸속에서 내 마음이 훑어 벗어나야 있어서도 전 우주의 근본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통신할 수 있고, 또 들고 내는 작업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아니게 할 수 있고, 돌이 아니게 아픈 것을 건져 줄 수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한 울에 한 마음으로, 나와 더불어 돌이 아픔을 알게 되고 가정을 이끌어 가고 조화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저 하늘의 해가 일체 만물을 따뜻하게 비취

주고 키워 줍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씨로 따뜻한 지혜로써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생각 생각이 부드러운 지혜로써 서로 융합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해와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남의 마음이 따뜻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어찌 남의 마음이 따뜻할 때를 바라겠습니까? 내 마음이 약하게 되면 그건 무간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착하고 밝고 깨끗하게, 정심으로 서로 지혜롭게 따뜻한 마음으로 돌이 아니게 모든 일체 사람들을 대하고 일체 중생을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상대를, 모든 것을 대한다면,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스스로 상대도 밝아져서 나와 더불어 맑게 불을 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주 약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더라도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도 돌이 아닌데, 다 마음을 밝게 해서 그저 한마음이 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근본 자리에서 맡겨 놓으세요. 그리고 중요성을 버리시고요. 그런 것도 거기가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알지도 못하고 자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망하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말하자면 그냥 '내가 사랑(思量)으로 남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잘못했다면 할 게 아니라 또 잘못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모든 것은 당신만이 의합하게 같이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은 데서 살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가 맡겼을 때에 그 사람 가슴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시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시비를 하고 화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 이 세계, 아니 전체 우주를 싸우는 쫓겨난 마음을 들고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시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지구라는 이 항아리 속에서 우리가 품따거리면서 그렇게 지혜를 넓히고 지구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조그만 거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뜯고 화합을 가져

☞ 26면으로 계속

바른정법.바른인연

불교를 신(信),해(解),행(行),증(證)이라고 하지요. 바른 믿음을 전제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 결과물로서 분명 증득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한담시고, 앉아 있음에 익숙해져 있고, 삼재, 사주, 철학, 조류방생, 성지순례, 온갖 등(인등, 108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의 등)을 고유가 시대에 밤새 밝혀 놓고, 입으로, 말로써 밤새 부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도 일부는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불보살님전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선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즉 行(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천하지 않으니 증(證)에 해당하는 결과물로서 경전과, 전수경, 이산해연선사 발원문등에 나오는 신통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앉아만 있고, 말로써는 이제 충분한테 결과물인 신통은 어찌해서 보여주지 못하는가?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티벳 승려들은 또 그런 능력으로 실천하는데..... 기껏 우리가 한다는 것은 가벼운 신병 정도를 치유기 위해 구병시식, 천도제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구병시식, 천도제를 지내보니 말씀이 해결되었나요? 적어도 증득한 바 힘이 있다면, 초기 암환자 말고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말기암환자, 시한부, 희귀병등을 짧은 시간내에 민간요법, 식이요법등이 아닌 정법 기도로써 해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부처님 정법대로 실천할 때 그 힘은 생길 것이고, 이 신통이야말로 말법시대에 중생의 고통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인 병마를 들어주는 그 힘(신통 : 기도법력)이야말로 불보살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말씀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말세이고, 말법시대인데, 아직도 말만 하고 있을겁니까? 이 길을 가는 불제자라면 증득한 힘으로 과감히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 . 법 . 승 . 정법 . 실천도량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등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옷칠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포,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은, 일섭, 유일스님 문종의 수석만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 탕화, 계급
3절장인

만성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모두 자기가 해 놓은 거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25면에서 계속

오지 못하는 이러한 국민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질문하신 분이 불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계기로 진짜 불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본에서는 나쁜 생각도 법이 되는지요?

문 대행 스님 법어집 가운데 (자유인의 길)이란 책에 보면 "만법이 그 한자리에 출현하였으므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한생각을 내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체 법의 근본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쁜 생각을 내면 그것이 그대로 법이 될까 봐서 공부하기가 두렵습니다. 나쁜 생각을 낼 경우에도 그대로 법이 되어 버리는지요? 이 경우 사회에 악이 될 텐데요

답 네, 바로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한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좋은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을 바로 제도를 하려면 거기서 악업도 나오고 선업도 나오고 잘못하는 일도 나오고 강도짓도 나오고, 또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도 그 한마음 속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바로 거기다가 다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것은 본래 다 있거든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욕심 부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집착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본래, 전부 알고 계시죠? 그걸 좀 대답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공, 이런 거 잘못되면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일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앞에 강이 있는데 그냥 그걸 길이라고 가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올랐습니까? 그냥 가야 올랐습니까? 하여튼 그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강을 건너가야 되겠죠. 빠져 죽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문리를 띄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던져 보는 겁니다.

던져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빵점을 먹으면 도루묵이 돼 버립니다. 그 시도한 것이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냥.

만약에 조용히 일하다가 갑자기 '너, 거리에 나가서 좀 좀 취해봐' 이런 좀 추측했습니까, 또? '응, 내가 어떡하나 보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 누가 되고 자기한테 누가 되는데, 가정에 누가 되고 모두에게 누가 되는데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다스려야죠. 이제 마음을 거기서 나오는 대로 좋은 것은 하고 언짢은 것은 '아, 이력하면 안 되잖아, 누(累)가 되는데.' 하고 거기다가 '나를 테스트 해 보려고 이러는 거구나.' 하고 거기다가 되놓고 '참,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낚아지, 제 자리에다 되놔야지 그것을 안 된다 고만 하고 온통 주인공이 시키는 대로만 또 좇아간다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디 이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 사람이 잘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으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아휴, 우리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스님한테 왔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판단은 자신들이 해야지, 왜 내가 해?" 이럴 때가 많죠. 아, 자기네 가정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는 사는 사람들이 판단을 더 잘하지, 내가 더 잘하겠습니까? 주인공에서 나쁜 걸 시키든지 좋은 걸 시키든지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시키는 것은 뜻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걸 시키는 것은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양면을 다 놓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잘 내서 생각을 잘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믿는 거고 저래도 믿는 거죠. 자기를 가르치는 책적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자꾸자꾸 뜻을 보는 거니까. 가르치는 스승이니까. 자기 마음의 스승이니까. 자기 마음의 스승도 됐다가 때에 따라 친구도 됐다가, 때에 따라 부처도 됐다가 법신도 됐다가, 때에 따라선 부모 조상도 됐다가 자기 영혼도 됐다가 별놈의 게 다 돼서 돌아가요. 한 아버지가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모두 이렇게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이 묘한 법을 여러분이 잘 채택해

서 잘해 나갈 수 있어야만이 그대로 무심에서 나가는 그 모든 도리가 법이 돼서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에서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다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심부름꾼이 뭘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있습니까? 한 발짝 떼어 놓으면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없어지는 이 도리를 잘 아시면 나쁜 것도 법이고 좋은 것도 법이고, 잘못하는 것도 법이고 잘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 양면을 다 놓을 수 있다면 그거는 도(道)입니다. 진리입니다. 본래 진리라는 것은 놓고 가고 있습니다. 놓고 가는데 괜히 여러분이 붙들고 얽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좋은 것도 자기가 한 거고 나쁜 것도 자기가 한 거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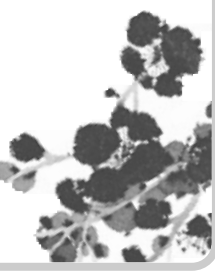
을 하고 "넌 나가지 말고 있어라." 그래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붙드세요. 마음은 마음으로서 해결이 되는 거지, 모습이나 말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영이다, 즉 말하자면 영의 근본이다.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영혼의 근본이죠. 즉,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면 주위에 대들보가 올라가고 기둥이 서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그 근본 그 자체가 돌이 아닌 까닭에 지식과 부모가 이렇게 마주치면 영, 영이 아무리 마주쳐도 영에다 영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수십 개를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영이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통하는 거죠. 그대로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가다 보면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도 아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만날 어머니가 울고 다녔어요. 울고 다니다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스님, 제가 여

기 다닌 지 3년이 되는데 지금 2년 만에 내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니깐 항상 아들하고 돌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관했더니 몇 달 안 돼서 그 나쁜 친구들을 다 버리고 딱 데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집엘 들어올 생각을 하니깐, 가지고 나간 돈도 다 없애고 그래서 돈 벌어 가지고 오느라고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참 고생도 많이 시켜 드렸고 그러니까 좀 가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이 서울에서는 감치 하는 감치독이 있어요. 겨울에 먹고는 인제 나중에 부셔서 또 울귀서 이렇게 얹어 놓죠. 그거를 뉘는데 난 데없이 들어오더니만 그 어머니를 붙들어서 이렇게 얹히고, 그거를 자기가 대신 부셔서 다 얹어 놓고 물을 부어 놓고는 주머니를 부시려부시려 하더니 돈을 꺼내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어머니가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은 백분지일도 안되지만 저의 마음이 이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불쌍히 생각하면서 왔노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그날부터 그렇게 착한 아들이 돼서 아주 동네에서도 본받게 되었답니다.

**내일 당장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자기 뿌리를 믿고 편안하게
'굶기는 것도 너고 먹이는 것도 너다' 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다 먹이게끔 돼 있어요**



에 둘 다 싸잡아 쥐고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게 좋은가를 자기 스스로 지켜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쁘다 좋다를 거머쥔 채 자기는 '아, 이것을 운전은 내가 하는 거로구나. 나침반이 나오구나.' 하고서 그걸 거머쥐고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자식 마음을 잡아야 할는지요?

문 자식이라곤 아들 녀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애가 통 마음을 못 잡고 밖으로 돌아서 걱정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답 아, 여러분이 제각기 자기 주처를 다 가지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인공' 해도 좋고 '주님' 해도 좋고, 이젠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니까.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너만이 오늘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다녀도 사고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오늘 회사에서 모든 타이임을 맞추어서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잘되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고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 자식 몸뚱이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욕

그와 같이 우리가 부부기간에도 그렇고 자식 기간에도 그렇고 그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다 없어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사삼사람이 한 철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데 네 닢 네 닢 하고 미워하고 예뻐하고 이렇게 한다면 요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니까요. 이거는 사삼사람이 모두가 인과응보라는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데 우연도 없고 무슨 팔자운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 놓은 거 자기가 모든 걸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좀 배우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모습이 내 정신계의 참자기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습니까. 이 상대성으로 인해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자체의 길을 만들려면 바로 자기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도리를 배우아 합니다.

관(觀)해도 답이 없어요


문 인터넷을 통하여 스님 법문을 받들며 나름대로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관을 해도 답이 없어요. 주인공과 통신이 되고 싶지만 잘 안되는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그렇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이 마음이 진짜 저 나무들이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살듯이 왜 친근한 맛이 있죠? 친근한 마음으로, 즉 말하자면 싸이 뿌리를 의지하고 진짜로 죽든 살든 뿌리를 믿는다. 죽든 살든, 안되든 되든 뿌리만이 길을 인도하고 지켜 주고 해결사가 돼 주고, 이끌어 주는 갑잡이가 돼 주고, 또 아프면 의사가 돼 주고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로만 해서 그게 통신이 되질 않아요. 벌써 관하면 진짜로 의지하고, 진짜로 널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뿌리를 믿고 편안하게 '굶기는 것도 너고 먹이는 것도 너다.' 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다 먹이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진짜로 믿는다면 바로 죽시 통신이 돼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뇌로 통신이 되면 바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에 입력이 돼 버려요. 입력이 되면 입력된 대로 과거의 것은 없어지고 새로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력을 하면 앞서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서 또 현실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묘한 법이예요. 아시겠어요?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해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총무원장 무량명 해봉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해봉 스님 직통 011-545-5060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추**
"생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 [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1. 교육과정**
 - (1) 초급과정 (3개월)
 - ◆ 조석예불
 - ◆ 사시불공, 삼보통칭, 각단불공
 - ◆ 시달림
 - (2) 중급과정 (3개월)
 - ◆ 바라춤 : 요점(막바라), 화의재, 사다라니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육)
 - ◆ 사물 : 태징, 북, 요령, 목탁
 - (3) 연구과정 (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 가지계,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다계작법, 범고춤, 운심계작법, 괘불이운. [강주 : 지효스님]
- 2. 개강일시 : 2011년 3월 21일 개강**
- 3.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총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 7. 접수기간 : 상시**
-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051)442-1817 010-2554-5582 (총무국장)**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총무원

무료 수강생 모집

"이는 것이 힘ियो, 기술이 능력이야. 이것이 재력이야"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쪽으로 기울는 경우, 장단축,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립니다)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력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주좌 : 농업 100023-56-156761(조명숙)